



홍성군  
HONGSEONG-GUN

친환경농정발전기획단 안현경

# 거버넌스란?

1. 공공과 민간의 파트너십 혹은 지역사회 협력  
(다양한 주체의 네트워크, 시민사회의 자율적 조절양식)
2. 공공부문에 시장원리 도입  
(정부의 실패에 대응한 공공관리로 이해)

(이관률, 충남연구원 2014)

# 준비과정

- 희망마을, 권역단위마을, 흥성협동사회경제네트워크, 농촌체험관광협의회  
: 협력관계 동의 → 모임('12.12) → **(준)거버넌스 발족(' 13.3)** → 정기모임



마을, 기관 정보공유 및 거버넌스 필요성 공감



거버넌스 준비위원회 모임(3월, 4월)



# 홍성통 운영방법

1. **합의**에 기초하고 운영주체의 파트너십의 크기나 참여범위에 제한을 두지 않음
  - 참여방법: (민간) 참여 역할에 기초, 기존 운영위 회원의 추천  
(행정) 해당 분야에 참여의사 물어보고 진행
  - 간사의 역할: 자료를 모으고 회의록 정리. 안건을 독려하고 협의. 공유
2. 별도의 조직이 아닌 기존 기관 및 단체들의 **네트워크** 촉진활동 수행
3. 관련 주체들이 연계협력할 사안에 따라 **자발적으로 자율적으로** 역할 분담 및 논의
  - “ 할 사람이 있으면 한다!”
4. 민간분야는 **지역협력네트워크**, 행정분야는 **농정발전기획단**이 코디네이터 담당
5. 정보공유 방법: 행정(메모보고를 통해 회의자료와 회의록, 회의결과 공유)  
민간(페이스북페이지, 인터넷카페, 분야별 회의에서 공유)
6. 월례회의 운영: 매월 마지막주 화요일 2시 (장소는 순환하여 진행)

# 홍성통

## 홍성군 농촌지역의 발전을 위한 민관협력 거버넌스

- **통**으로 한데 모으고
- **통**하게 잇고
- 지역 전문가인 **통**을 키워낸다는 뜻



"통"

1. 어떤분야에 '정통한 사람'을 의미
2. 막힘없이 들고나다는 뜻

홍성 + "통" = 홍성통

1. 홍성 농어촌 발전을 위해 관련 민간단체와 행정실과가 모여 이야기하고 협업하는 지역 거버넌스 이름
2. 홍성에 정통한 사람들이 다양한 분야에 정통한 사람들을 찾고 잇고 키우는 곳

홍성통 식구들은

홍성군 농어촌 발전을 위해  
함께 머리를 맞댈  
더 많은 홍성통들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 홍성통 이름 정하기(13년 8월 회의)

## 논의사항

[준]거버넌스 8월 정기모임

### 1. 거버넌스 명칭 정하기

□ 제안 명칭: 지역협력네트워크 '홍성 통(通)'

[참고] 기존 제안된 명칭안

명칭안	비고
1. 홍성군 미래창조경제협의회	조OO
2. 홍성 다모아센터	OO과
3. 홍성군 민관정책협력회의 (홍성군 민관업무공유 월간회의)	이OO
4. 민관협력상생발전협의회	정OO
5. 민관 지역 가꾸기 협력센터	전OO
6. 지역활성화센터	OO회
7. 홍성꼬뚜	권OO
8. 지역협력발전소 홍성통 지역협력네트워크 홍성통	안OO, 전OO

-----안전 및 논의-----

### 1) 거버넌스 명칭

(이OO) 거버넌스의 성격을 대변할 수 있는 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결정하기는 어려운 상황인거 같고..

(전OO) 오늘정도면 정했으면 좋겠는데.. 이 안에 대해서 의견을 주시면.

(손OO) 몇 달 된 거니까 빨리 이야기해서 결정해야지..

(이OO) 제안하신 의견이 최선인 것 같아서 동의합니다.

(조OO) 길잡아요. 구지 네트워크를 넣지 말고 지역협력 '홍성 통' 하면 어떨지? 통보다 축이 나올 것 같은 게.. 움직이는 거니까 축!

(이OO) 축은 어감이..

(손OO) 의미나 지역 이름은 좋은데, 거센소리가 나서. 이름이나 네임으로는 거센소리가 들으면 안 좋아..홍성통은 빼면 어떨지..

(김OO) 네트워크는 일반적으로 많이 쓰니까..

(이OO) OO발전소 하는 작명법은 일본에서 많이..

(이OO) 저희들끼리 협의만 되면 이름이 정해지는 건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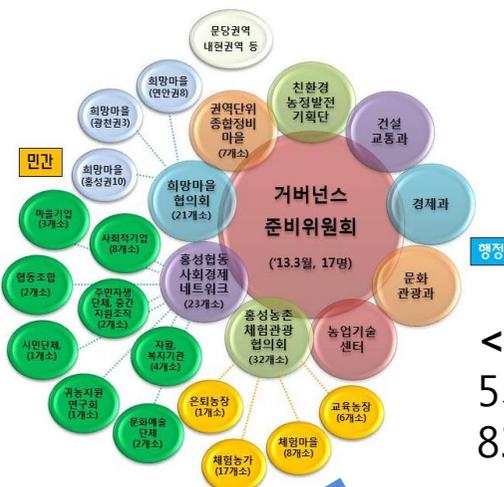
(정OO) 이게 농정기획단에서 몇날며칠 고민 한 결과니까.. 한번

(이OO) 홍성 통속에 빠져보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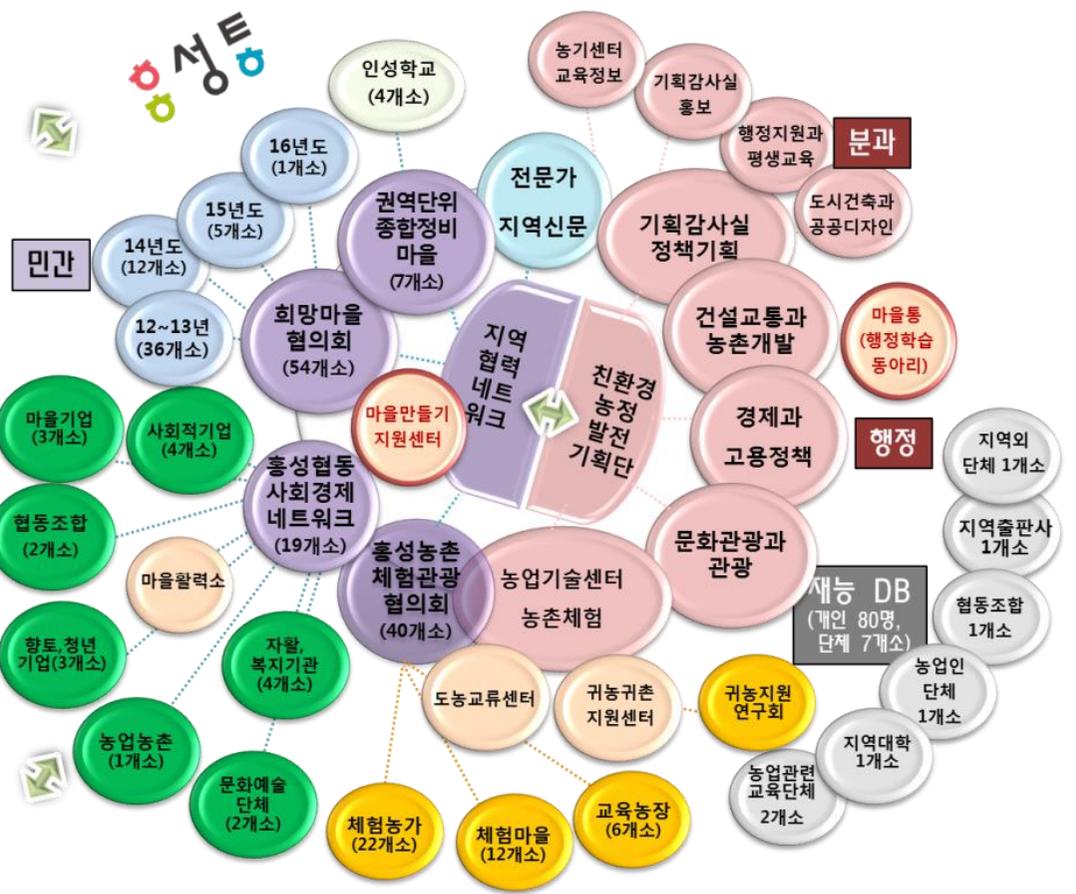
(이OO)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그럼 지역협력네트워크 홍성통으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짝짝짝)

# 참여주체



<2013년>  
5개 부서,  
83개 단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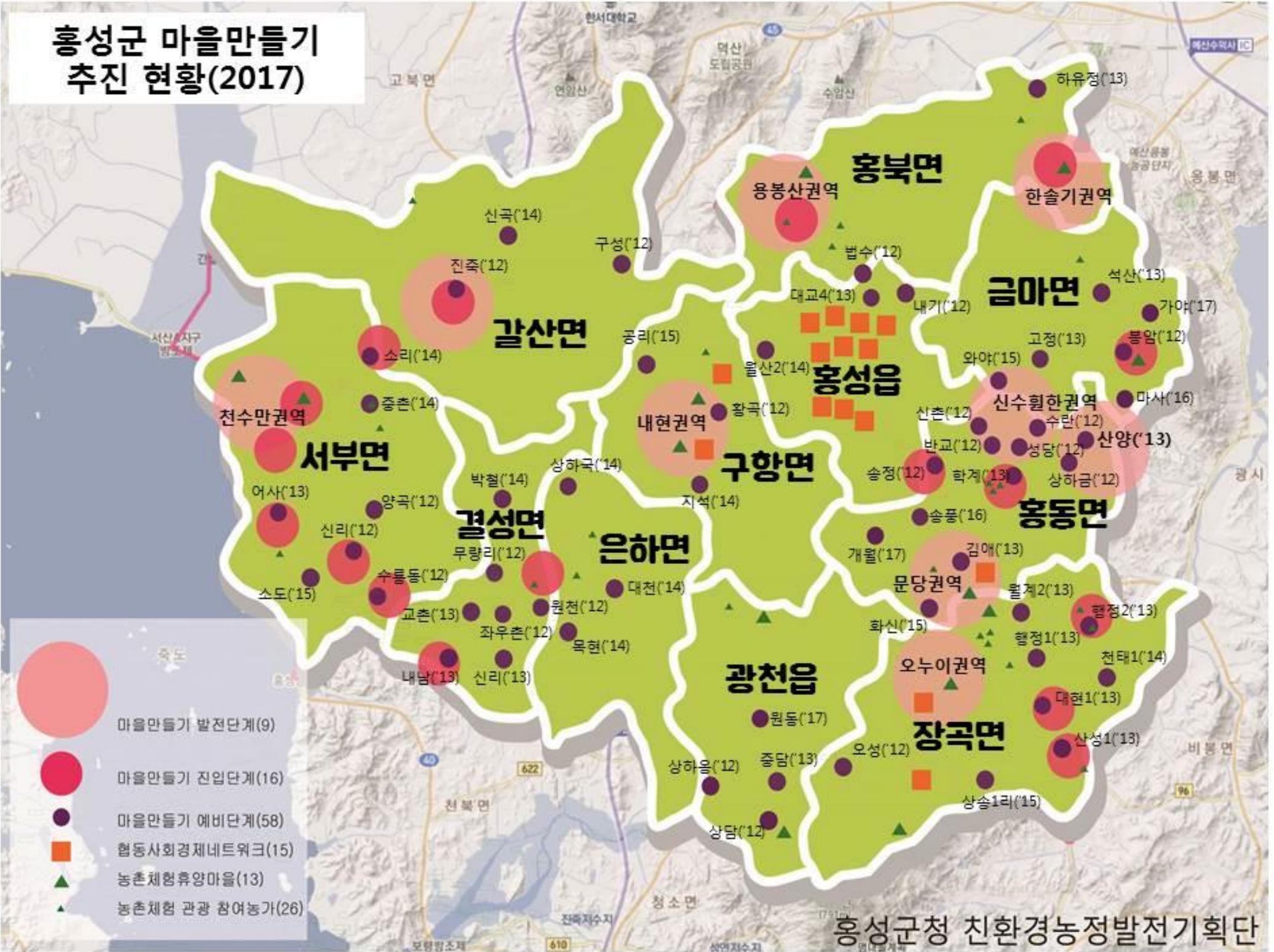


<2014년>  
3개 부과,  
10개 부서,  
113개 단체

<2016년>  
민간네트워크 구축  
3개 부과,  
10개 부서,  
120개 단체,  
센터설립(12월)



# 홍성군 마을만들기 추진 현황(2017)



- 마을만들기 발전단계(9)
- 마을만들기 진입단계(16)
- 마을만들기 예비단계(58)
- 협동사회경제네트워크(15)
- 농촌체험휴양마을(13)
- 농촌체험 관광 참여농가(26)

# 무엇이 나아졌나? 한계는?

참여자, 홍성통이 되다?

참여가 습관이 돼다.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다 ex) 홍성통 폐북 14년 88명 > 17년 1,779명

공유 협력 토론의 연습 ex) 공동 선진지 견학, 일정조정, 공동참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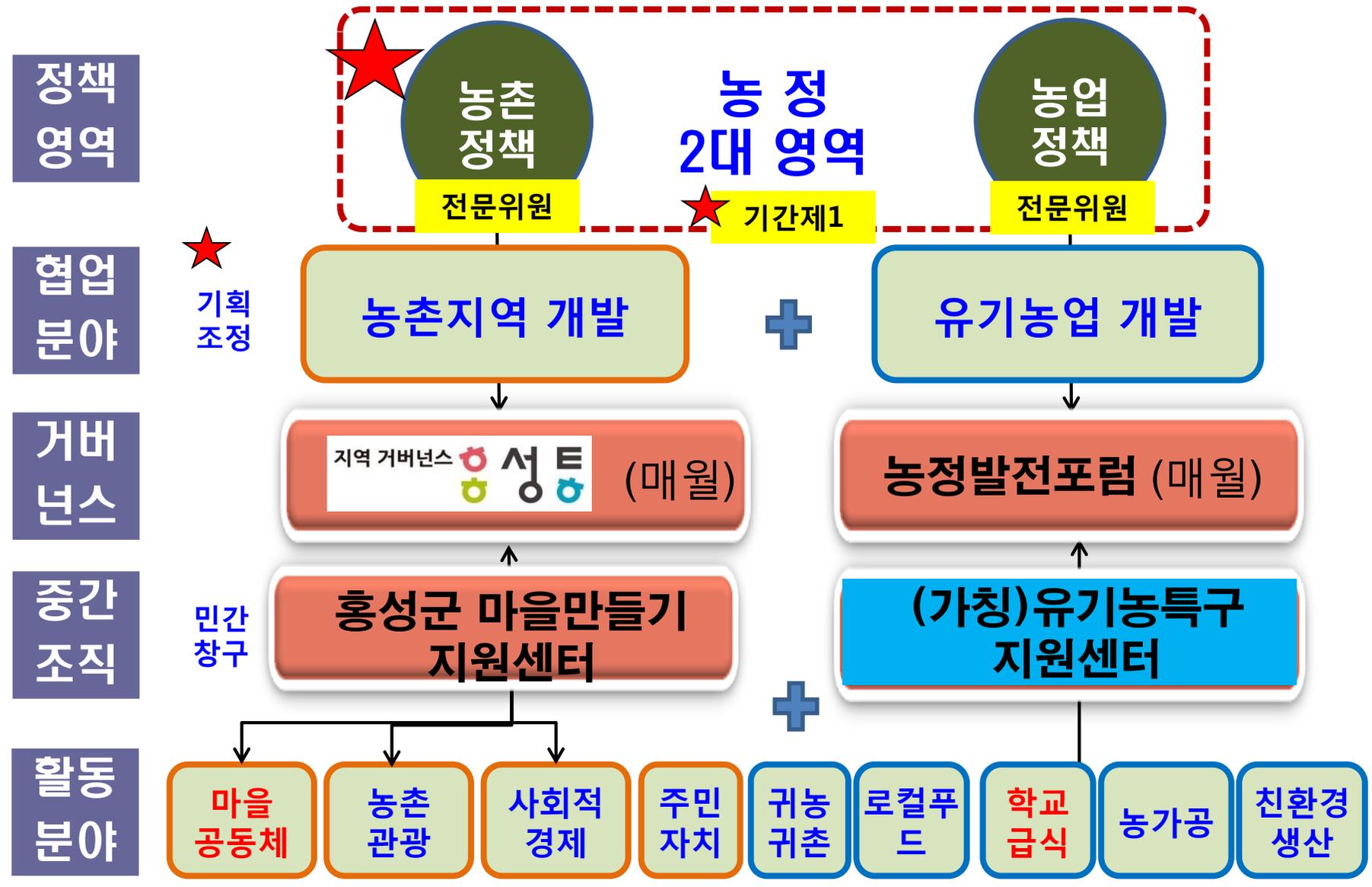
---

역할분담, 자원배분 등 구체적인 문제

절차를 통한 정책조정과 행정에 반영

함께 시행착오를 겪고 있는 중

# 향후 과제 - 농업과 연계



# 향후과제 - 제도화

## 거버넌스 전환 이론

### Niche 틈새수준

전적으로 새로운 실험적  
정책, 행정행위, 행정조치의  
도입단계

.....  
새로운 철학과 가치가  
포함되어 있어서 보다  
보편적인 시스템 변화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 정책

ex) 시립대학 반값 등록금 조치

### Organizational Level 조직수준

틈새 수준의 정책실험이  
보다 확실한 기초를 갖고,  
조직과 인원을 배치하여  
종래의 관행을 근본적으로  
혁신하는 정책으로  
발전하는 단계

ex) 정책, 현장시장실,  
경기도 혁신학교

### Institutional Level 제도수준

혁신이 제도의 틀  
(조례, 법률, 행정조직,  
중간지원센터 등)을 갖추고  
안정적인 상태로 정책이  
집행되는 단계

.....  
다양한 이해와 가치를 가진  
시민과 이해당자들이  
참여할 때 비로소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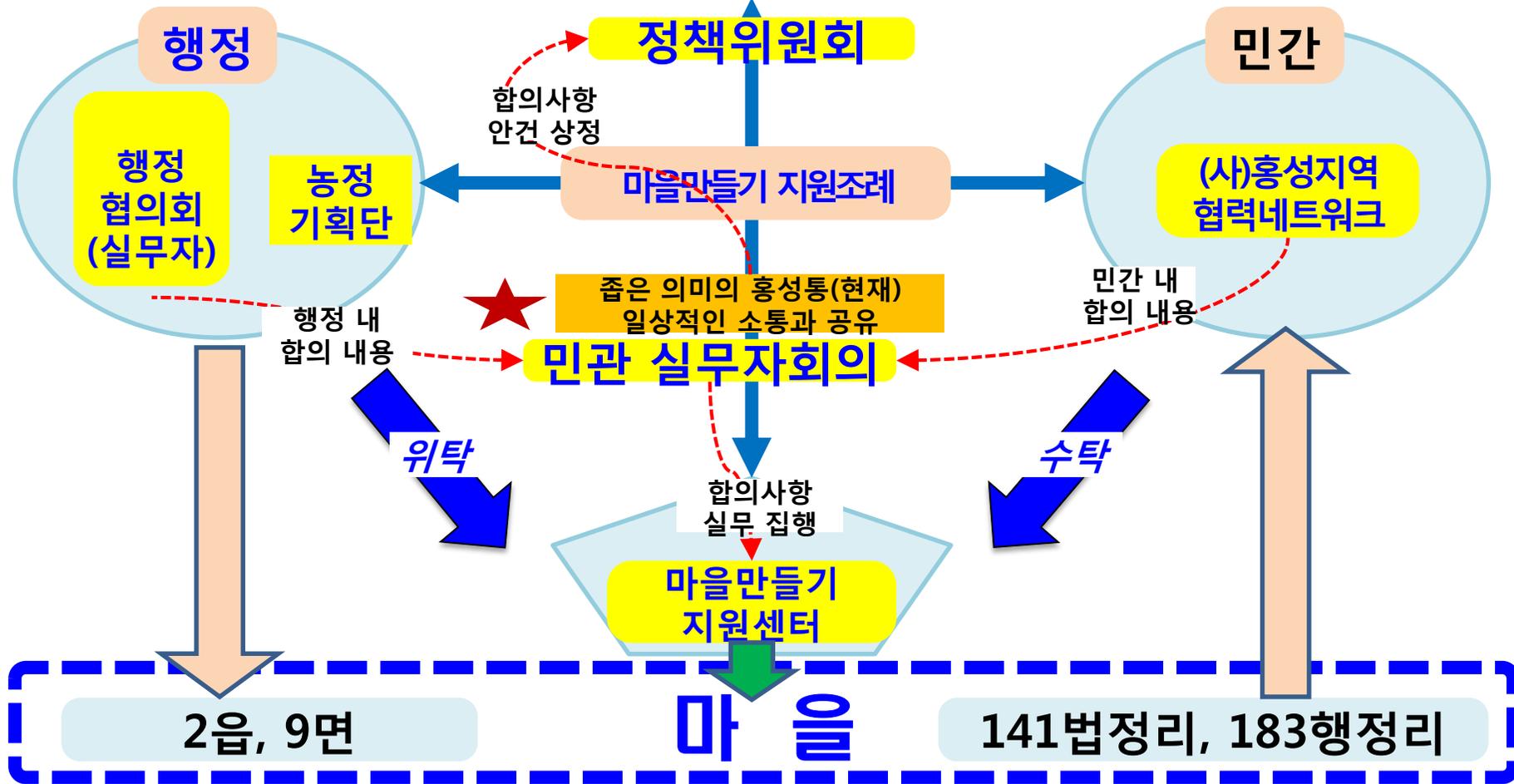
### Landscape 풍경전환

혁신지향적인 여러 제도들이  
상호작용을 통해 사회전체의  
모습이 이전 단계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모습을  
보이는 단계

# 향후과제 - 흥성통의 방향

**흥성통의 향후(흥성통+): 자율에서 조례에 근거를 둔 조직, 의무적 활동 결합**

→ 민관 실무자회의(현재) + 행정협의회(신설) + 지역협력네트워크(신설) + 정책위원회(신설) + 지원센터(신설)  
 의원, 공무원(실과소장), 전문가, 민간 대표



<구자인, 흥성군 마을만들기 지원시스템 구축 방안, 2015>

